

데스크시각



최재호 편집부국장·경제부장

불황의 장기화, 김영란법, 주 52시간 근무제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로 업계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 가운데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독주나 폭탄주 대신 가볍게 즐기는 음주 문화의 확산, '혼술'로 대표되는 음주 트렌드 변화에 따라 주류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69년 이어 온 지역 기업 보해양조는 파고를 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해는 지난 2017년 임직원 임금 일부 반납과 그해 80명가량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규모 조직 통합과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매각설까지 등장했고, 보해양조는 이에 대해 "매각은 악의적인 의도로 유포된 루머로, 매각은 절대 없다. 빠른 경영 정상화로 지역민들의 사랑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향토 기업 보해를 지켜 냅시다”

했다. 일세주로 대표되는 보해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 79.32%를 찍은 이후 매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 시장 점유율은 30~40%대로 추락했다. 경북의 금북주와 경남의 무학은 각각 지역 내에서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유독 광주-전남에서는 지역소주인 보해가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시장 회복에 사활 걸어

보해가 지역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진단이 있지만 2011년~2013년 사이 보해저축은행 예파로 지역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도민들의 애정이 식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백기에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 경쟁 제품이 지역 시장을 파고들자 보해는 시장을 내주고 만 것이다. 젊은 층의 성향과 입맛을 읽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보해는 지난 10년 동안 변화하는 시대 트렌드를 대처하지 못하는 단일한 경영과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보해는 올해 중국·필리핀 등에 수출을 확대하는 등 시장 다각화를 꾀하는 한편 지역민과의 적극

적인 스킨십을 통한 시장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최근 보해를 응원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위드(with) 보해 프로젝트'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광주에서 청년문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주)스토리박스의 강수훈 대표가 처음 제안했다.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과 매각설이 나오는 보해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일세주 등 보해 소주를 마시고 있는 '인증샷'을 올린 뒤 후속 릴레이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강 대표는 "보해가 지역 사회 고용 창출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등 지역 사회 경제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이 운동에 이용섭 광주시장도 힘을 보탤다. 이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토 기업 보해 지켜 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동참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광주시 동구역시광주대표도심 축제로 발돋움한 충장축제에서 올해 '소주 블라인드 테이스팅' 행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애주가들조차 자

역 소주인 보해 일세주를 외면하는 상황이 소주맛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는 분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신년 모임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 모의 행사를 했는데 일세주가 다른 소주보다 맛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대해 편견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맛 떨어진다’ 인식은 편견

보해가 자칭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다면 300여 명이 지역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 업체들도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69년 향토 기업을 지켜 내지 못한다면 지역민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가 남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애함식'에 의존하는 기업 행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맞다. 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없고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는 데다, 지역에 대한 사회 공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관심 부족으로 지역 기업이 동력을 잃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민들로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향토 기업 보해를 지켜 냅시다' 캠페인에 사·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 lion@kwangju.co.kr

은펜칼럼

3월을 맞이하며



김창군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1942년 어느 봄날, 시인 박목월은 조지훈을 고향 경주에서 처음 만났다. 낮에는 신라 사적을 거닐고, 밤에는 문학과 삶을 얘기하며 열을 넘겨 어울렸다.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간 지훈이 목월에게 감사의 편지와 함께 동봉한 시 한편이 '목월에게'라는 부제를 단 '완화삼'이었다. 감격한 목월은 '술 익는 감마을의 저녁노을이여'이라는 '완화삼'의 일절을 부제로 한 시 '나그네'로 화답하였다. "강나무 건너서/ 밀밭 길ыл/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롭기/ 남도 삼백리 /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두 시인이 함께 한 망중환(亡中環)의 시간 덕분에 '북에는 소월, 남에는 목월'

이라는 찬사를 날게 한 작품이 태어났다. 여유와 함께 하는 삶이 부여하는 가치를 일화를 통해 되돌아보며, 한줄기 봄 바람처럼 다가오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떠올리는 3월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리는 3월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학년을 맞는 달이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따스한 햇살 속에서 꽃망울이 맺히듯,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한 기대로 설레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이들의 '새 학기 증후군'(new semester blues)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등교 시간이 다가오면 배를 움켜쥐거나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 등 변화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기대와 학업에 대한 부담이 겹치면서 신체적 아픔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수험생 뒷바라지로 애쓰다 자식을 대학에 보내놓은 부모에게는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한다. 말 그대로 뒤처다꺼리에 정신 없었던 아이들이 떠나고 보

니, 특별히 몸이 문제가 없음에도 여기저기 수신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며 쉬 피로감을 느낀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잉 성과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금지, 강제, 규율, 의무, 결핍과 같은 부정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능력, 성과, 자기 주도, 과잉과 같은 긍정적 패러다임이란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시키는 사람도 없건만 자신의 자유의지로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죽도록 일하다, 그 결과로 죽음만큼 피곤해지는 인간성을 만들어 낸다는 통찰이었다.

피로 사회에서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찾아가기보다는 기성세대의 획일주의에 휩쓸려 나가 누군지 모른 채 무작정 욕망을 키워가기 십상이다. 이 상황에서 긍정적 동기 부여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밧이 되어, 자칫 스스로 정한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여 좌절감과 우울증에 빠지게도 된다. 차근차근 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급히 추종하다 보면 도리어 영기가 마련이니 치사분지(治絲勞之)를 경구(驚口)로 삼고, '사

색, 무위와 심심함, 휴식의 가치'를 강조한 한 교수의 말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세속의 가치에 맞춘 '무대 위의 배우'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에 따른 삶을 긍정하는 자세이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SKY 캐슬'에서 강준상(정준호 분)은 "어머니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잖아요"라고 일갈했다.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보지 않고 어머니 말만 들으며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에서 나온 말이다. 전형적인 터널 안 시각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자성이자,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온 일부 부모들에 대한 경중(警鐘)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세속적'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심하지만 무심한 듯한' 격려와 지지를 안고 자신의 본성(性)대로 자라야 하고, 그 안에서 부모의 행복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성취를 향한 끊임없는 압박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구름에 달 가듯이' 스라벨(Study and Life Balance: 공부와 삶의 균형)과 함께 하는 3월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전남대병원의 마루동 시대 개막을 염원한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광주시청에서 상무역을 지나 서광주역 쪽으로 가다 보면, 줄지어 늘어선 빌딩하우스와 잡초 무성한 공터들이 눈에 띈다. 호남 최대의 중심 업무 지구인 상무지구나 계획적으로 구획된 금호지구 모퉁이는 사투 생경한 풍경이다. 이른바 광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공군 탄약고 일대의 모습들이다. 공군 탄약고는 지난 1975년 광주시 서구 마루동 일대에 들어섰다. 그 규모만 37만㎡에 달한다. 인근 벽진동과 금호동 등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해도 165만㎡나 된다.

탄약고가 들어설 당시만 해도 마루동 일대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인근 상무, 금호, 풍암동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졌다. 화려한 도

심 속에서 마루동이 외딴 섬처럼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광활한 대지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탄약고를 포함한 마루동 일대는 제2 순환도로가 지나고, 지하철 1·2호선이 합류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행정·금융·상업타운인 상무지구와는 바로 인접해 있다. 대천 에너지 밸리, 송정 스마트 시티와도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약고 일대는 지금 한창 개발중에 있어야 한다. 탄약고 대체 부지를 확보한 국방부가 작년 말까지 탄약고 이전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탄약고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약고 이전은 시간 문제일 뿐, 이제는 마루동 일대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료 관광 벨트 조성이다.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신축 이전 문제와도 결부되는 일이다. 1910년 개원 이래 전남대학교 병원은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지역민들의 애환을 함께하며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왔다. 하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복합 메디컬센터 체제 구축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건물과 좁은 부지, 부족한 병상 수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되어 왔다. 병원 신축 이전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임직원, 접근성은 배가 될 것이다. 거기에 아껴놓은 땅 서창의 너른 들녘까지 품고 있으니,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손색이 없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탄약고 일대는 지금 한창 개발중에 있어야 한다. 탄약고 대체 부지를 확보한 국방부가 작년 말까지 탄약고 이전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탄약고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 병원의 신축 이전 후보지로 새롭게 마루동이 부각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중 하나로 앞서 언급한 사통팔달의 잘 뒤여진 교통망이 그것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앞으로의 의료 기관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의 이동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인프라도 중요하다. 마루동에 인접한 상무지구와 금호지구는 행정, 금융, 의료, 컨벤션 등 웬만한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다. 상무지구와 관천터미널 일대에 밀집된

병·의원들과의 의료 관광 벨트 조성도 가능하다.

나주혁신도시와 대천 에너지밸리, 첨단 3지구 의료 클러스터와 연계한 보건 의료 융복합 산업까지도 육성이 가능하다. 광주시에서 계획중인 마루동 교육문화 특구 개발과 MICE 중심 타운 조성 계획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부지내 상당 부분이 국공유지인 관계로, 토지 매입이 용이하다는 점도 사업 추진에 가속을 붙일 수 있다. 광주 서전남대의대동문 3600여명 중 82%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 병원의 신축 이전 후보지로 새롭게 마루동이 부각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중 하나로 앞서 언급한 사통팔달의 잘 뒤여진 교통망이 그것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앞으로의 의료 기관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의 이동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인프라도 중요하다. 마루동에 인접한 상무지구와 금호지구는 행정, 금융, 의료, 컨벤션 등 웬만한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다. 상무지구와 관천터미널 일대에 밀집된

社說

무안공항 도약 위한 市道 공동 보조 절실하다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건설된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전북이 추진하는 새만금공항이 포함된 데다 광주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는 군 공항, 전남은 민간 공항 이전에만 치중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 전략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개항 12년째를 맞은 무안공항은 인천-김포-제주 등과 함께 국내 8개 국제공항 중 하나이지만 여객 운송 실적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무안공항의 운항 편수는 3818편, 여객 수는 54만 3000명에 그쳐 강원도 양양공항에만 앞섰다. 이런 위상은 광주공항의 1만 3546편, 198만 6000명을 그대로 흡수할 경우 그나마 조금 나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무안공항과 같은 서남권인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하면서 노선과 이용객의 중복으로 '반쪽 공항'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노둣돌로

오늘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오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용열차 편으로 중국 중남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전용기 편으로 베트남에 도착했다. 이들은 오늘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제2차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두 정상은 만찬 뒤 내일 다시 만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 갈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선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회담 당시 합의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에 관한 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는 좋다.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견해가 일치한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을 2021년까지 통합하고 광주 군 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최근의 행보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등 군 공항 이전에, 전남은 후보지인 무안군의 반발을 의식한 듯 민간공항 통합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새만금과 최근 재부상한 동남권 신공항에서 보듯 전국 지자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항 육성을 놓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간 공항과 군 공항 이전은 물론 열악한 기반 시설 확충 등 무안공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보조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통합 지역을 이유로 무안공항에 대한 신규 투자를 미룰 게 아니라 서남권 거점 공항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 대한 낙관론과 함께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전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난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두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로서는 결코 원치 않는 바다.

어찌 됐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두 정상이 가슴과 가슴으로 노둣돌을 놓아 구체적 비핵화 조치 및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신한반도 체제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염원한다.

無等鼓

"원수 하나 있어/ 주먹을 쥐네/ 불끈 전 밥으로/ 주먹을 쥐네." 담양 출신 손택수 시인의 시 '주먹밥' 전문이다. 짧은 시속에 원수와 주먹, 밥과 주먹이 대비된다. 앞과 뒤의 '주먹'은 같은 주먹이 아니고, '쥐다'라는 동사 역시 각각 다른 뜻을 내포한다. 원수를 향해 쥐는 주먹과 밥을 불끈 쥐는 주먹은 너무도 다르다.

주먹밥은 만들기가 쉽다. 찰기 있는 밥을 두 손으로 쥐며 동글동글하게 만들면 된다. 그러나 주먹은 주먹밥을 떠올리면 울컥하는 병상하지 않다. 먹고 살기 어

식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먹밥을 많이 만들었다."(“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시민군들은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계엄군에 맞섰다. 양동시장과 서방시장 상인들도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2017년 개봉한 5·18 영화 '택시 운전사'(감독 장훈)에서도 주먹밥이 주요 모티프로 활용된다. 독일 기자 힌츠페터를 광주까지 태우고 온 만섭(송강호 분)은 홀로 순천으로 빠져나온 후, 금남로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주먹밥을 떠올리면 서 울컥한 것이다. 그는 딸에게 전화로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라고 말한 후 광주로 다시 되돌아간다. 주먹밥이 광주 대표 음식 브랜드로 개발된다. 광주시는 주먹밥을 광주만의 고유함을 담은 미식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이 계속되는 이때, "광주 공동체 정신"의 상징인 주먹밥이 '1980년 광주'의 진실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내. /송동문 문화2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문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FAX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